

201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자유참가작 심사평

일시 : 2014.9.11.(목) 11:00 ~ 12:00

장소 :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

심의회원 : 박계배(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장), 정대경(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), 이정만(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)

[201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자유참가작]은 관객들의 이목이 대학로에 집중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기간 동안,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대학로의 공공극장, 소극장 등이 하나가 되어 대학로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, 이번 공모에는 총 23개 작품이 신청하여, 축제와의 적합성(30%), 작품의 우수성(30%), 신청 단체의 신뢰도 및 공연 참여인력의 우수성(20%), 공연 추진 계획의 충실도(20%)를 기준으로 심사하였다.

공모 공고시 제시했던 응모 자격(서울 대학로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9일 중 공연되는 작품)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응모자격이 적합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. 또한 각 신청 작품이 2014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토의를 통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하였다.

선정된 13개의 작품은 2014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공식참가작과 함께 다양한 공연예술의 현재를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. 처음으로 시도되는 [201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자유참가작]을 통해 9월, 10월의 대학로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한다.